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통합 전당원투표 대표직 걸겠다”

“당 미래 막고 정치이득 연연한 사람 거취 분명히 해야”
통합 반대파 “대표가 소속의원에 전쟁 선언” 강력 반발
호남 의원들 탈당 보다는 투쟁 통해 당 사수 나설 듯
지방선거 앞두고 광주·전남 정치권 격랑... 시계 제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일 당내 찬반 논란이 격돌하고 있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와 관련해 대표직을 걸고 전(全) 당원 투표를 전격 제안했다. 하지만 호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반(反) 통합파가 강력 반발하면서 전당원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통합 절차 등을 놓고 당내 갈등이 폭발할 전망이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당 당 대표 직위와 권한 모든 것을 걸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당원의 의견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안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자신의 거취와 연계해 ‘전당원 투표’라는 배수진을 치고 나오면서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정계개편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

안 대표는 이어 “당원의 찬성이 확인되면 단호하고 신속하게 통합절차를 밟아 나가겠다. 신속한 작업 후 새 당의 성공과 새 인물 수혈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면서 “만일 당원의 뜻이 반대로 확인될 경우 사퇴는 물론이고 그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이 미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자신의 정치 이득에 매달리려는 사람이 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김대중 정신을 호도하는 구대 정치, 기득권 정진의 회복”이라고 강조, 통합에 반대하는 호남 의원들에게 사실상 전면전을 선언했다.

그는 이어 “올해 내로 재신임 투표를 끝내고 방향에 대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당원이 찬성하면 구체적 절차는 내년 1월부터 밟아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고 밝혔다. 이에 당내 반 통합 진영은 안 대표에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강력 반발했다. 박지원 의원은 “전쟁 선언”, 전정배 의원 ‘공작정치’, 정동영 의원은 ‘유신 투표’라고 안 대표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안 대표의 통합 로드맵 발표에 대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당원을 배신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당 대표가 당원과 소속의원들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의총을 통해 <전당원 투표 즉각 중지> △호남 의원들에 대한 사과 △당 대표직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안 대표가 이날 오전 통합 로드맵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의총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분통을 터트렸다.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 탈당보다는 강력한 투쟁을 통해 당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전남지역 정치권도 격랑에 휩싸인 모습이다. 국민의당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안 대표의 제안에 “당의 뿌리인 호남을 버리는 후안무치한 처사”라고 성토했는 등 광주·전남지역 시군구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한편, 안 대표 측은 21일 당무위를 소집, 전당원 투표와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선거관리 위탁 등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당무위는 안 대표 측 인사들이 과반 이상이어야 의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또 27~28일 케이보팅 온라인 투표, 29~30일 ARS 투표를 거쳐 31일 전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당원 투표 가부는 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으로 확정된다.

당 내외에서는 전당원 투표에서 통합 의견이 우세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당에 대한 실망감으로 호남 당원들의 투표 참여가 저조한 반면,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는 안 대표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통합 찬성 의견이 결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1 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 스마트가전·복합금형·디지털생체의료 등 4개

전남, 바이오헬스·첨단신소재·에너지신산업 등 4개

지역특화 산업 집중육성

산자·중기부 지역경제위원회

광주시의 스마트가전 산업과 전남도의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산업 등 광주·전남지역 8개 산업이 정부 지원 등을 통해 지역특화(주력)산업으로 육성된다. 또, 광주의 에너지신산업과 전남의 스마트친환경건설산업 등 4개 산업은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경제협력권 산업으로 키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와 중기부의 주요 사업과 예산 4909억원을 의결했다.

광주의 경우 지역특화(주력)산업 분야에 210억원의 예산을 스마트가전, 복합금형, 디지털생체의료, 광융합산업 등 4개 분야를 추진한다. 또 경제협력권 사업으로는 에너지신산업(전북)과 전기·자율차(전북·부산) 등 2개 분야를 추진하고 2018년에 133억원이 투입된다.

스마트가전산업은 로봇, AI, 빅데이터 등 스마트 융합기술이 결합된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 디지털생체의료산업은 이 지역의 생체의료소재부품산업을 기반으로 소재부품, 의료용 3D프린터, 디

지탈 스캐너 및 캐드캠, 빅데이터 활용 의료기기 및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 복합금형산업은 빅데이터 등 ICT연계를 통해 금형의 신기술을 개발하는 산업이다.

전남지역 신산업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전남은 4대 주력산업과 2대 경제협력권산업으로 재편한다. 4대 주력산업은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에너지신산업, 첨단운송기기부품, 청색·청정환경 산업이다. 2대 경제협력권산업은 첨단신소재·부품과 스마트·친환경선박 산업이다. 전남도는 이들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와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내년엔 국비 등 총 3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주력산업 중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산업 육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소재, 향노화 화장품, 천연물의약품, 의료용 생체적합성 소재 등을 생산하고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해 한전의 미래전략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 첨단운송기기부품은 고충 항공·IT 융합 인프라와 영광 대마산단을 중심으로 시설을 집적화하고 청색·청정환경 분야는 전남의 특화자원과 자연모사 기술을 적용한 사업화에 나선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영암 새끼오리 분양 받은 농장서도 AI 검출

농장간 수평 감염 현실화

영암의 한 육용오리 농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 농가는 지난 10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영암 종오리농장에서 새끼오리를 분양 받은 곳이어서, 농장 간 수평 감염 우려가 현실화됐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일 19일 영암군 시종면 육용오리농가에서 출하한 오리에 대한 시료 채취 검사 결과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육용오리 3만1300마리를 사육 중인 이 농가는 지난 10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영암 종오리농장에서 새끼오리를 분양받았으며, 거리는 11km가량 떨어져 있다.

수평감염 우려로 특별관리 대상 농가여서 고병원성 여부에 따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AI가 발생한 종오리 농장에서 새끼오리를 분양받은 나머지 9개 농장에 대한 관찰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당 농가의 고병원성 여부는 21일

정밀조사를 거쳐 판명될 예정이다. 만약, 고병원성 확진 판정이 나오면 농장 기준으로 옮겨져 들어 전북 고창 육용오리농가, 영암 신북 종오리농가에 이어 세 번째다.

전남도는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방역관과 조동방역팀을 현장에 파견해 이동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 해당 농장 반경 500m 이내 발생농장을 포함해 사육하는 오리 3농가 7만 3000마리는 살처분했다. 3km 이내 12농가 55만마리(오리 7농가 16만3000마리, 닭 5농가 38만7000마리)는 예방적 살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계림동 다동이네 9번째 천사 ▶7면

대한민국예술원 특별전 ▶16면

남도, 시간속을 걷다 '니주 잠사' ▶18면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앞으로 50일
2018년 2월 그 순간,
당신은 누구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2018년 2월 9일~2월 25일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2018년 3월 9일~3월 18일

미리 만나는 2018 평창 2017. 12. 22(금) ~ 12. 24(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일대

올림픽 특별 콜센터 1330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검색